

세계 초우량 기업을 향해가는 원익그룹, 원익인이 함께하는 사보

원익

2008
가을호
vol. 16



행복한 사람

“어머니!” 하고 부를 때
어머니가 “오냐, 왜...” 하고 대답하시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을 때
튼튼한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시계를 보며 바쁘게 산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때
아름다운 단풍잎 하나 선명하게 떠오르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찾아가면 언제라도
반갑게 맞아 주고, 이야기 다 들어 주고도
아쉬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뚝 모를 설렘으로 발걸음이 빨라진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 정용철의 '마음이 쉬는 의자' 중에서 -



표지 설명

원익의 27주년을 기념하는 화합과 축제의 시간이자, 원익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최고의 에너지와 추억을 선물한 '2008 원익 스포츠 페스티벌'이 지난 10월 17일,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열렸다.

원익그룹 사보 | 원익인 2008년 가을호

통권 16호 | 발행일 · 2008년 10월 | 발행인 · 임창빈 | 발행처 · 원익그룹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3층

기획 · 기획조정실 (02-3465-1410) | 편집 · 매직랜턴 (02-325-7916)



Contents

- 4 **Wonik News** | 원익그룹 계열사 주요 소식
- 6 **Special Edition** | 2008 국제반도체대전, 원익그룹 4개사 참가
- 8 **Power of Wonik Technique** | 디비코(주), HD PVR '티빅스PVR R2210' 신제품 발표회
- 10 **Wonik's Today** | (주)원익머트리얼즈 생산팀
- 12 **Wonik News** | 원익그룹 계열사 단신 뉴스
- 15 **Discovery of Baduk** | 제 4기 원익배 십단전 본선 진행 중
- 16 **Cover story** | '2008 원익 스포츠 페스티벌' 축제 현장
- 20 **Self Innovation Note** | (주)IPS 김형석 부장
- 22 **Wonik Training Program** | 2008년 하반기 그룹 교육 실시
- 24 **Zoom In** | 신원종합개발(주) 마라톤 동호회 '신원 러너스 클럽(SRC)'
- 26 **Talk Box** | 원익 직원 참여 이벤트 '만원의 행복'
- 28 **Economic Report** | 국제 금융 위기의 진실과 향후 전망
- 30 **Health & Business** | 직장인의 적 스트레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 32 **Book & Business** | 비즈니스 맨의 책읽기
- 33 **CEO Column** | 디비코(주) 이지웅 대표이사



(주)원익퀵츠, (주)원익머트리얼즈, (주)아이피에스, (주)아토

2008 국제반도체대전, 원익그룹 반도체 4개사 참가

국제반도체대전(International Semiconductor Exhibition)이 지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전자전(KES), '국제정보디스플레이대전(IMID)'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는데, 세계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대거 참가해 기술력을 겨룬 이번 전시회에 원익그룹 4개사가 모두 참여, 앞선 기술을 선보이며 바이어들과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주)원익퀵츠는 올 초 코엑스에서 열린 'SEMICON 2008' 때와 마찬가지로 300mm 제품과 대형 LCD 세라믹 제품을 선보여 장비 업체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또한 N2O, NH3, CO, PH3 등의 고순도 및 특수 가스와 수소, 산소, 헬륨, 아르곤, 혼합 가스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여 반도체/FPD/LED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고순도 특수 가스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 주었다.

세계 최초로 8세대용 드라이에처 생산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던 (주)아이피에스는 이번에도 역시 8세대용 드라이에처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세태를 반영하듯, (주)아이피에스의 또 다른 생산품인 솔라셀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주)아토에서 선보인 MAHA-SP는 지난해 출시된 MAHA의 성능을 더욱 개선시킨 것으로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린 획기적인 제품. 지난해 중국 수출로 해외시장의 포문을 연 데 이어 올 11월에는 대만에도 수출될 예정이다.

전시회 첫날, 이용한 회장을 비롯한 4개사 사장과 임원들은 부스를 방문, 전시된 제품들을 둘러보며 현장에 나온 각사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주)원익머트리얼즈, '벤처기업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10월 22일 COEX에서 열린 '2008년도 벤처기업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벤처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21세기 벤처 산업을 이끌어갈 우량 벤처기업을 발굴 포상하는 행사로서, 이번 수상을 통해 (주)원익머트리얼즈는 기술 혁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술, 경영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특수 가스 전문기업으로서 명성을 알리고, 역량있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Headline News



(주)위닉스

IBC 2008 전시회 참가

(주)위닉스는 2008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 전문 전시회인 'IBC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 2008'에 참가해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주)위닉스가 선보인 Winix Multimedia Center '고화질(HD) IP 셋톱박스'는 IPTV 뿐 아니라 위성, 지상파 방송도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셋톱박스'로 개발 완료로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외에도 (주)위닉스는 세계 최초로 IRDETO secured chipset을 적용한 DVB over IP STB 와 Digital Cable STB를 선보였고, PVR(Personnel Video Recording) 기능을 내장한 고화질(HD) 지상파 셋톱박스 등도 소개했다.



디비코(주)

이지웅 대표, '17회 다산기술상' 기술상 수상

디지털 멀티미디어 전문기업 디비코(주) 이지웅 대표가 지난 10월 10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개최된 '다산(茶山)기술상' 시상식에서 기술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이지웅 대표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200만원의 기술 발전 지원금도 받았다.

이지웅 대표는 주력 제품인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티빅스(Tvix)'에서 세계 최초로 지원하게 된 H.264 재생 기술과 아날로그TV로 HDTV를 수신, 녹화할 수 있는 PVR 기능 등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다산기술상'을 통해 멀티미디어 기술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은 '티빅스'는 안방 TV옆 등 가정에서, 고화질의 HDTV, 영화, 교육방송을 감상할 수 있으며, 5.1채널의 음악 감상을 통한 오디오 기능,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대형TV로 감상할 수 있는 뷰어 기능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가전제품으로, 국내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히트 상품이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다산기술상'은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술 및 연구 인력을 발굴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기술 중시 사상을 계승, 기술 개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상이다.

'다산기술상' 기술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지웅 사장은 "우수한 상품을 출품한 많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멀티미디어 기술 분야에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보다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원익의 기술력 돋보인 세계 반도체 기술의 각축장



반도체 관련 최신 기술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반도체대전(International Semiconductor Exhibition)이 지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전자전(KES), '국제정보디스플레이대전(IMID)'과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 특징. 세계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대거 참가해 기술력을 겨룬 이번 전시회에는 원익그룹 역시 4개사가 모두 참여, 앞선 기술을 선보이며 바이어들과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전시회 첫날인 10월 14일 오전, 전시회가 열린 킨텍스 4홀은 이른 아침부터 참가 회사 직원들과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준 원익의 4개 부스에도 제품을 문의하는 바이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국내 최초로 300mm 웨이퍼 양산 시스템을 갖춘 (주)원익퀀츠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자랑했다. 올 초 코엑스에서 열린 'SEMICON 2008' 때와 마찬가지로 부스를 찾은 장비 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300mm 제품과 대형 LCD 세라믹 제품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주)원익퀀츠와 나란히 자리한 (주)원익머트리얼즈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비치해 반도체 공정용 특수 가스에 대한 관람객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 N2O, NH3, CO, PH3 등의 고순도 및 특수 가스와 수소, 산소, 헬륨, 아르곤, 혼합 가스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한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반도체/FPD/LED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고순도 특수 가스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 주었다.

세계 최초로 8세대용 드라이에처 생산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던 (주)아이피에스는 이번에도 역시 8세대용 드라이에처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8세대용 드라이에처는 40인치 이상의 대면적 LCD TV용 패널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로, 드라이에처의 핵심 기

술인 식각 균일도를 향상시키는 등 최적의 공정 균일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 이미 지난 6월, 대만에서 열린 'Display Taiwan 2008'에도 참가해 (주)아이피에스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한 몫을 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주)아이피에스는 11세대 장비를 개발 중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세태를 반영하듯, (주)아이피에스의 또다른 생산품인 솔라셀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주)아토에서는 MAHA-SP를 선보였다. MAHA-SP는 지난해 출시된 MAHA의 성능을 더욱 개선시킨 것으로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린 획기적인 제품. 지난해 중국 수출로 해외시장의 포문을 연 데 이어 올 11월에는 대만에도 수출될 예정이다. 장비 일부가 아닌, 전체가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여세를 몰아 내년에는 일본 시장 진출도 계획중이다.

4일 동안 전시회 부스를 지키며 제품 설명과 바이어 상담 등을 진행한 원익 4개사 직원들은 '원익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전시회 첫날엔 이용환 회장을 비롯한 4개사 사장과 임원들이 부스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디비코(주), 대중 가전 시장 겨냥한 세계 최소형 HD PVR '티빅스PVR R2210'

멀티미디어 전문기업 디비코(주) (공동대표 이지웅, 이혁 www.dvico.co.kr)는 지난 9월 2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정용 영상녹화기인 '티빅스 PVR(Personal Video Recorder)' 신제품 출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반 가전 시장을 겨냥한 새 제품들을 선보였다.

디비코(주)에서 내놓은 신제품 '티빅스PVR R2210'은 HD 방송뿐만 아니라, 디지털케이블, 아날로그 방송까지 녹화되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VCR로서 세계 최소형의 크기, 유려한 디자인, 알루미늄 소재의 여성 친화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 마니아 층을 넘어서 일반 가전 시장에서도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마니아 시장을 넘어 일반 가전 시장, 세계 시장으로 확대될 전략 제품

지난 9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선보인 '티빅스PVR R2210' 신제품들은 마니아 시장을 뛰어넘어, 대중 가전 시장에도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이다. 그 동안 디비코(주)의 제품들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얼리어답터를 중심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해 왔으나,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신제품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기능과 편의성을 높였고, 녹화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쓰기 쉽도록 하였다.

또한 이 제품들은 국내뿐 아니라 최근 더욱 높아지고 있는 해외 수출 시장에서의 매출을 더욱 높여 줄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현재 디비코(주) 전체 매출의 70%를 해외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유로 2008을 계기로 유럽에서 HD 방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디비코(주) 제품에 대한 인기 또한 크게 높아졌다. 디비코(주)는 현재 유럽뿐 아니라, 중동 시장 개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신제품들을 통해 월 3만 대 이상으로 수출 양을 확대할 계획이다.

+ 다양하고 쉬운 최첨단 기능, 초소형의 유려한 디자인

이번 신제품들은 기존의 제품과는 다르게 공중파 HD방송은 물론 디지털케이블과 아날로그 방송까지 수신 녹화 기능을 모두 지원한다. 이 밖에도 아날로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생방송을 정지시키는 '타임쉬프팅' 기능과 720P의 고해상도 UI(User Interface)를 채택하는 등 첨단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신제품의 특징은 소형 외장 하드 정도의 세계 최소형 사이즈와 알루미늄 검정 베젤을 채용한 유려한 디자인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이 제품은 외부에서는 외장 하드로 쓸 수 있도록 하고, PVR로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거치대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마니아 시장을 뛰어 넘어 대중적인 가전으로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EPG 지원 등 다양한 기능 지원

또한 신제품은 지상파 HD디지털 방송 시 제공되는 EPG(전자 방송프로그램 가이드)정보를 이용하여 시청 중인 채널 정보뿐만 아니라 이후 시간대의 방송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프로그램 선택 후 손쉽게 바로 녹화, 예약 녹화, 주간 반복 녹화 기능을 지원한다.

그리고 파워온 녹화와 고화질 외부 입력 녹화 지원도 특징적인 기능으로 꼽는다. 특정 시간을 설정하여 원하는 채널과 원하는 시간의 방송을 보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콤포지트(Composite)와 S-비디오 등의 외부 입력 녹화를 지원하여 비디오 테이프, 캠코더 등에 보관된 아날로그 영상을 MPEG2 디지털 포맷으로 변화하여 저장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HDMI 1.1단자를 채택하여 연결성을 높였고, 1080i HD급 고화질 동영상 재생, 백업한 DVD를 원본과 동일하게 재생해 주는 DVD쥬크박스, MP3는 물론 WMA, OGG, AAC 등 최신 음악 포맷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 재생과 장면전환 효과도 개선되었는데 사진 로딩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고 여러 가지 장면전환 효과가 추가되었다.



아울러 이들 신제품은 대기 전력이 불과 0.46W로 정부의 대기 전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동작 시에도 13W 내외의 극히 작은 전력을 소모하여 전력 사용량을 극소화하였다. 최근 누진세로 늘어난 전기 요금 절감에 화답하는 노력이다. 이 밖에 유럽 환경 규격인 ROHS 부품을 전량 사용하여 국내 보다 한층 까다로운 유럽 환경 기준에 맞추고 있다.



한편 이날 제품 발표회에는 R2210과 기능은 같지만, 3.5" HDD를 채택한 '티빅스 PVR R3310'과 TV튜너 기능이 제외된 '티빅스 HD R3300'도 같이 발표되었다.

디비코(주)의 이지웅 대표는 "티빅스는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이번 신제품은 타임슈프팅과 아날로그 녹화를 포함하여 본격 PVR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은 물론, 2.5인치 HD-PVR이라는 전인미답의 영역에 도전하여 정말 작게 만들었다."면서 "진정한 디지털 시대의 VCR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생각하고 만들었으며, 시장의 평가를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티빅스 PVR R3310, R3300은 용산전자상가, 테크노마트, 국제전자센터, 전국 대도시 컴퓨터 도매상가와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 지마켓 등 오픈 마켓, 아이코다, 컴퓨존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각각 285,000원, 225,000원(부가세 포함)에 구입 가능하나 '티빅스 PVR R2210은 10월초에 국내의 시장에 런칭될 예정이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생산팀, 고품질과 친환경을 도약의 밑거름으로 삼는다

(주)원익머트리얼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고순도 특수 가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생산팀은 이러한 반도체용 고순도 특수 가스를 정제하고 충전하는 팀으로 F2, BF3, NO, NH3 등 다양한 종류의 가스를 취급하고 있다.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 활동,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으로 경영 효율화에 앞장서고 있는 (주)원익머트리얼즈 생산팀을 찾았다.

신제품 개발과 친환경 시스템에 주력

(주)원익머트리얼즈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크게 MIX(혼합) 가스와 PURE(순수)가스로 나뉜다. MIX가스는 순수 가스를 2종 이상 혼합한 가스를 말하며, PURE가스는 단일 성분의 고순도 가스로서, 특정 불순물의 함량이 일정 농도 이하로 보증되는 가스를 말한다. 반도체, LED, LCD 등 산업용 고순도 특수 가스가 이에 해당한다.

올해 (주)원익머트리얼즈 생산팀에는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새롭게 공급하게 된 F2 MIX와 BF3. 현재 생산팀은 이들 제품의 개발과 추가 설비 셋업을 완료한 상태다. 신제품 개발은 생산팀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도 굉장한 화제를 몰고 왔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에는 9톤 용량의 N2O Tube Trailer를 처음으로 출하해 눈길을 끌었다.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도 생산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올 초 공급량 증가로 프로펠렌 공장이 증설됐고, F2와 F2 MIX를 생산하는 공정에 새로운 설비가 도입돼 한층 고급화된 정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온도에 의한 원료 정제에서

벗어나 한 단계 고급 기술인 전기분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게 된 것. 이 공정은 지난 7월에 셋업이 완료되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10월부터 가동하는 암모니아 회수 시스템은 원가 절감과 환경친화적이라 다방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원익머트리얼즈에서는 악취 예방을 위해 가스를 대기로 배출할 경우 반드시 이를 중화하는 스크러버 시스템을 거치는데, 이때 Burn-스크러버 즉 배출되는 가스를 태워서 버리는 방법과 중화제를 뿌리는 스프레이 방식을 사용한다. 회수 시스템은 스크러버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거치는 단계로, 남은 가스를 최대한 재정제해서 다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남은 미세한 양을 스크러버로 보내게 되면, 중화 처리하는 양을 줄이고 원료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절감은 물론 환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하나로 똘똘 뭉친 생산팀의 사나이들

특수 가스의 생산 공정은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다. 우선 새 실린더가 들어오면 내면처리실에서 연마제로 내부를 깨끗이 연마한 후 밸브를 장착한다. 이 과정을 거친 실린더는 진공배기실로 옮겨지는데, 이곳에서 실린더 안에 들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공 상태로 만든다. 이 실린더 안에 제품 즉 MIX가스와 PURE가스가 각각의 공정을 거쳐 충전된다. 또한 고객사에 판매된 가스는 제품 사용 후 실린더를 다시 회수해 오는데, 이때 회수된 용기는 잔가스처리실로 보내져 남아 있는 가스 잔량을 처리하게 된다. 잔가스를 처리한 후 실린더는 다시 진공배기공정을 거친다.

이처럼 대부분의 과정에서 가스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팀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지사. 이를 위해 생산팀에서는 일일 안전 점검은 물론 매주 임원들과 환경안전팀 관계자들이 현장을 점검하는 임원안전합동점검을 운영해 팀원들이 안전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생산팀 PURE파트의 이상수 사우는 “위험성이 높은 가스를 취급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상 서로의 안전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니 다른 부서에 비해 조직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 같고 단합이 잘 된다.”고 자랑한다.

생산팀의 또 다른 특징은 32명의 팀원이 모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자 직원이라는 것. 그야말로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젊은이들로 구성됐다. 생산팀의 구자생 과장은 “젊은 친구들이 많아 볼링이나 실내 축구 등 스포츠를 통해 주로 단합을 도모하는 편”이라고 설명하며 “다들 재미있고 책임감이 강해 근무할 때 회식할 때 항상 즐겁다.”고 말한다. 생산팀 출하파트의 박준영 사우 역시 “팀원들이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형제처럼 지내고 있다.”며 단합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부서별 대회가 열리면 생산팀이 상을 휩쓸 정도라고 전했다.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올 초부터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의 5S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생산팀은 이를 기본으로 현장의 정리와 정돈은 물론 품질관리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TPM활동을 전개해 좀 더 깨끗하고 정돈된 생산팀만의 분위기를 만들어 경영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원익머트리얼즈의 비약적인 도약과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는 32명의 생산팀원들. 그들이 있기에 (주)원익머트리얼즈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다.





(주)원익

08년도 하반기 임원 워크숍

(주)원익은 10월 2일에서 3일까지 1박 2일간 임원 및 팀장을 대상으로 대교 HRD연수원에서 '08년도 하반기 임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당사 발주 및 채권 프로세스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발주 및 채권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자 이루어졌다.

발주 및 입고의 현상을 진단하고 프로세스 개선안을 토의하고 확정된 후 채권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 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채택된 실천 방안은 회사의 적극적 지원 아래 시행될 것이다.



중국 SHENZHEN ANKE사와 PERMANENT MRI

국내 총판권 계약 체결

(주)원익 이미징사업부는 중국의 SHENZHEN ANKE사와 PERMANENT MRI의 국내 총판권 계약을 ANKE사 본사에서 7월 16일에 체결하였다.

PERMANENT MRI는 영구자석방식의 MRI이며, 개방형 Type의 환자 친화적 컨셉으로 폐쇄공포증의 어린이와 노인들로부터 공포 및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또한 Supercon Type에 비해 전력 소비를 1/10~1/20로 줄였으며, 헬륨과 냉각수가 불필요 하는 등 저렴한 운용비가 장점이다. SHENZHEN ANKE사는 CHINESE ACADEMY OF SCIENCES와 CT, MRI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의 ANALOGIC CORPORATION 사와의 합작회사로, 수준급의 CT, MRI, DR 등 Imaging Total Product 를 보유하고 있는 이미징의료장비 전문 회사이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증을 거쳐 2009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Brief News



Optimus DOT(Diffuse Optical Tomography) 인허가

(주)원익 이미징사업부의 이미징팀은 미국 University of Connecticut에서 최초 개발한 DOT(Diffuse Optical Tomography) 기술과 초음파가 결합된 조기 유방암 진단 장비를 인허가받았다. 중국 XinAoMDT사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는 장비는 현재 진단 방법인 X-ray mammography와 초음파와 비교하여 방사선 유출이 없는 안전성과 0.5cm의 작은 종양도 발견이 가능하여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원익쿼츠

사랑의 헌혈 릴레이 및 봉사 활동 실시

(주)원익쿼츠 사회 봉사단인 '원익나눔회'에서는 직원 참여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과 추석맞이 불우 이웃 돕기를 실시하였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80여 명 임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동참한 가운데 지난 7월 30일 당사 사옥에서 직접 헌혈차가 방문하여 헌혈 행사를 실시하였다. (주)원익쿼츠의 헌혈 행사는 매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직원 참여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최근 부족해지고 있는 혈액 공급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헌혈증을 기증하였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헌혈증은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되어 소아암, 백혈병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익나눔회'에서는 9월 13일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 독거노인 및 저소득 어려운 주민 50세대를 방문, 쌀과 라면 등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누었다. 회사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임직원들이 헌혈 행사에 참가하였는데 앞으로도 매년 헌혈 및 이웃 돕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아이피에스

한누리봉사회, 동절기 대비 봉사 활동 실시

(주)아이피에스 봉사 활동 동아리인 한누리봉사회는 평택시 가재동에 위치한 천혜보육원에서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한누리봉사회는 지난 4월 삼성전자 협성회의 2008년 세미엘 봉사단 시범사로 선정되어 연간 활동비를 지원받을 만큼 꾸준히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는 천혜보육원에 1달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냄과 동시에 환경 정화, 주변 정리 등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는 봉사 활동 기관을 양로원 등으로 확대하여 평택시 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나눔의 기쁨을 펼칠 예정이다.



(주)아토

창립 17주년 기념행사 진행

(주)아토는 9월 26일 창립 17주년 기념으로 직원 화합 및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고자 당사 교육실에서 전 사원이 참석하여 간소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금번 기념행사는 장기근속자 27명(5년 근속 26명, 10년 근속 1명)과 공로자 10명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당사의 창립 17주년을 기념하여 주차장 정원에서 야외 식사를 하는 행사도 가졌다. 임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바비큐를 구워가며 함께 즐기는 식사를 통해 임직원간의 화합과 결속력을 다졌다.



N2 Generator 준공식 및 16Line 제품 출하 안전기원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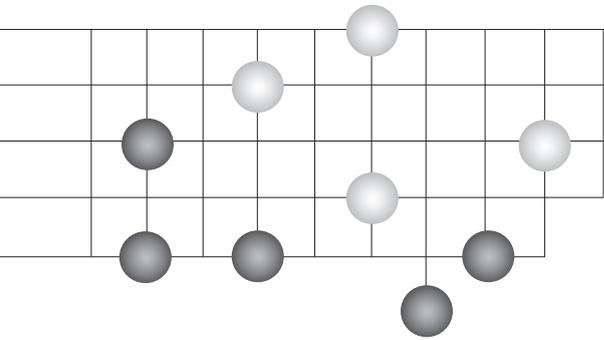
(주)아토는 8월 29일 질소가스발생장치(N2 Generator) 준공식 및 장치사업부문의 삼성 16L 제품 출하 안전을 기원하는 기원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기원제에는 당사 모든 임직원이 참석하여 질소가스발생장치의 준공과 16L 제품 출하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질소는 당사 가스 사용량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스로서, 그 사용량이 최근 4년간 연평균 114%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단위당 구입 원가가 다른 가스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당사 제조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금번 질소가스 발생장치의 도입으로 소모성 가스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제조원가 하락으로 인한 제품단가 경쟁에서 우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둑의 진정한 지존을 향한

본격적 승부 겨루다

본선 토너먼트 14강 중 10명 확정



제 4기 원익배 십단전이 지난 7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예선전을 거쳐, 최종 44명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였고 이들은 십단위 등극을 위한 행보를 계속 하였다. 44명의 본선 진출자들은 지난 8월 13일을 시작으로 9월 11일까지 44강이 겨루는 본선 1회전을 마쳤으며, 9월 17일부터는 본선 2회전에 돌입하여 현재까지 14강 진출 인원을 확정하고 있는 중이다.

9월 17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 4기 원익배 십단전 본선 토너먼트에서는 이세돌 9단과 박정상 9단이 나란히 14강에 올랐으며, 9월 18일에는 위예량 4단과 강유택 2단이 나란히 승전보를 전해왔다.

이세돌 9단은 최원용 5단을 상대로 194수 끝에 백불계승을 거뒀고 박정상 9단은 최명훈 9단을 171수 끝에 흑불계로 따돌렸다. 이세돌 9단은 최철한 9단 대진동규 4단의 대국승자와 대결할 예정이며 박정상 9단은 장주주 9단과 전영규 3단의 대국승자와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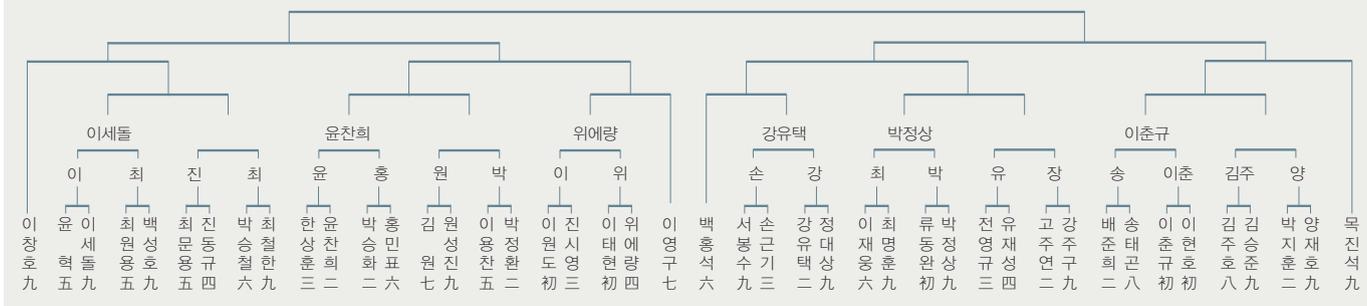
위예량 4단은 이원도 초단을 상대로 266수 끝에 백3집 반승을 거뒀으며 강유택 2단은 손근기 3단을 맞아 134수만에 백불계로 물리치며, 14강에 합류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선 2회전, 3회전을 통해 최종 8강 진출자가 확정되며, 12월에서 2월초까지 8강, 준결승, 결승이 진행될 예정이다. 바둑 TV에서는 매주 월/화 (22:00~24:00) 2일간 중계되며, 준결승 및 결승 3번기는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바둑의 진정한 지존 십단을 배출하게 되는 제 4기 원익배 십단전은 제 3기에 비해 대회 규모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명실상부한 국내 정상の本격기전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원이 주관하고 경향신문과 바둑TV가 공동 주최, 원익그룹 3개사 (주)원익, (주)원익리츠, 신원종합개발(주)이 후원하는 원익배 십단전 우승상금은 전기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이며 준우승상금은 1,500만 원이다. 제한 시간은 각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제 4기 원익배 십단전 본선 대진표〉





패기, 혁신, 비전, 창조 의 정신으로 화합과 도약의 힘을 모으다!

원익의 27주년을 기념하는 화합과 축제의 시간이자, 원익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최고의 에너지와 추억을 선물한 '2008 원익 스포츠 페스티벌'이 지난 10월 17일,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열렸다.

10월 17일, 충주의 건설경영연수원은 화려한 단풍과 상쾌한 공기가 가득하여 원익 식구들이 가을 축제를 벌이기에 최적이었다. 고적대의 환영을 받으며 전국의 원익 식구들이 속속 도착하고 행사가 시작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안개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대신했다. 고적대의 힘찬 퍼레이드에 맞춰 기수단과 패기팀((주)아트, 신원종합개발(주)), 비전팀((주)원익취츠, 디비코(주), 한미열린기술투자(주)), 창조팀((주)위닉스, (주)원익머트리얼즈), 혁신팀((주)원익, (주)아이피에스) 등 4개 팀의 선수단이 입장했다. 그리고 이용한 원익그룹 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모든 임직원들의 열광적인 환호, 축포 속에 '2008 원익 스포츠 페스티벌'이 화려하게 시작되었다.





패기와 열정으로 응원하며 경쟁하며 하나가 된 원익인!

개회식 후 각 팀은 열띤 응원전과 함께 곧바로 축구, 족구, 피구 등 각 종목의 예선전에 들어갔다. 각 구기 종목에서는 프로 선수들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경기 내내 긴장감 넘쳤던 족구경기, 여성 사우들의 평소 숨겨뒀던 열정적이고 과격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피구와 씨름 경기 등에서도 원익 식구들의 넘치는 열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스포츠 행사에서 선수들의 경기도 중요하지만 역시 화려하고 열정적인 응원전이 빠질 수 없다. 각양각색의 응원도구로 완전 무장한 각 팀의 응원단은 선수들에게 열정적인 응원을 보냈다. 특히 '혁신' 팀은 자체 응원단과 모형헬리콥터를 이용한 독특하고 재미있는 응원을 펼쳤고 '패기' 팀은

팀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대형 깃발과 북을 이용해 행사 내내 뜨거운 응원을 펼쳐 응원상을 받았다. 그리고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페이스 페인팅 행사와 뽑기, 솜사탕, 떡볶이 등을 맛볼 수 있는 '추억의 먹거리 장터'는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했다. 자녀와 함께 참여한 사우의 모습 또한 더없이 정겨워 보였다. 점심 식사 후에는 '도전의 체전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었다. 오후에 진행된 '박 터뜨리기', '깃발 쟁취전', '배차전', '세계로 전진하는 릴레이'에서는 임원진과 사원들이 함께 참여해 원익인의 하나가 된 모습을 자랑했다. 특히 '깃발 쟁취전'에서 이용한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이 참여해 젊은 사원들 못지않은 패기와 열정을 보여 응원단의 힘찬 박수갈채를 받았다.



Wonik Sports Festival



원익인의 끼와 재능에 놀라고, 풍부한 볼거리에 환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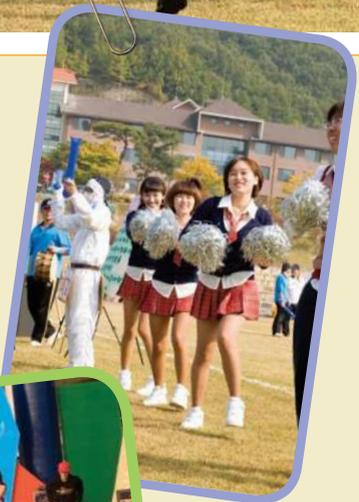
모든 스포츠 행사를 마치고 퓨전 국악팀 '황진이'와 비 보이팀 '원마인드'의 환상적인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한마음 페스티벌'이 인기 개그맨 김학도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사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앉아 즐거운 담소와 맥주를 나누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주)원익, (주)원익퀴즈, 신원종합개발(주), (주)아이피에스, (주)아토, (주)원익머트리얼즈, (주)위닉스의 사우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짬을 내어 열심히 준비한 장기 자랑 시간이 이어졌다.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진 공연을 보여준 원익 식구들의 끼와 재능에 모두들 다시 한 번 감탄했다. 장기 자랑의 단골 메뉴인 춤과 노래 외에도 전통 스포츠 댄스, 타악기 퍼포먼스, 뮤지컬 형식의 댄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로 사우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특히 (주)아토의 난타팀은 타악기와 검도 퍼포먼스를 통해 짜임새 있는 구성과 완성도 높은 연주 실력으로 '화합'이라는 주제를 잘 표현해 우승했다.

장기 자랑과 각 부분에 대한 시상식을 마친 후 폐회사에서 이용한 회장은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한 모든 식구들에게 치하를 아끼지 않았으며 그룹 전사원들과 함께한 이번 행사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어려운 국제 경제 상황으로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예상되지만, 행사에서 보여준 원익 가족들의 열정과 단합된 힘으로 극복하자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이에 모든 임직원들은 도약의 굳은 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박수와 환호로 답하였다. 이어 27주년을 기념하는 2,700개의 풍선에 모든 원익 가족의 기대와 소망을 실어 날리는 행사로 '2008 원익 스포츠 페스티벌'을 마무리했다.





'2008 원익 스포츠 페스티벌' 경기 결과



종합 시상 결과	
1위	창조팀
2위	비전팀
3위	혁신팀
4위	패기팀
응원상	패기팀

개인 시상 결과	
MVP	(주)원익쿼츠 김종진
우수상	(주)원익쿼츠 김종운
감투상	(주)위닉스 조은숙

장기자랑 시상 결과	
우승	(주)아트 난타 공연
준우승	(주)원익 스포츠 댄스
인기상	(주)위닉스 댄스

종목별 시상 결과	
축구 우승	비전팀
족구 우승	혁신팀
피구 우승	창조팀
씨름 우승	창조팀

도전의 체전 한마당 시상 결과	
원익의 블루오션을 찾아라 (박 터뜨리기)	혁신팀
깃발 탈취전	비전팀
원익 배차전	창조팀
원익의 힘을 한곳으로(줄다리기)	패기팀



(주)아이피에스, 반도체 / LCD 장비산업의 진정한 리더를 꿈꾼다

강호동과 최홍만,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노키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모두 극적인 자기 변화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성공적으로 창조한 예라는 점이다. 즉 이전과 전혀 다른 자기 창조를 이루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항상
새로워지는
조직의 비밀
변화를 통한
자기 창조

삼성전자는 본래 가전제품을 조립하던 회사였다. 하지만 이제는 반도체와 TFT 모듈 같은 부품사업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LG전자는 세계 시장에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기업이었다. '골드스타'라는 초라한 브랜드

에 OEM으로 간신히 연명하던 이 회사가 오늘날 백색가전 분야의 세계 3대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핀란드의 노키아는 펄프와 고무 그리고 전선을 만들던 중소기업이었다. 하지

만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핸드폰의 30% 이상을 공급하는 세계 제일의 핸드폰 제조업체로 변신했다. 이런 일이 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강호동이라는 걸출한 씨름 선수가 있었다. 씨름판을 포효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인생 향로를 개그맨으로 전환하여 개그계의 기린아로 우뚝 서게 되었다. 최홍만 역시 갑작스럽게 이종격투기 선수로 진로를 바꾸어 K1 월드그랑프리 서울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이 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창조했을까? 그 해답은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집착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은 예외 없이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항상 새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며 미래 조직의 성장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창조와 혁신이 필요하다.

여기 변화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주는 또 다른 예가 있다. 미국의 경제 주간지 '포브스'는 1917년에 미국 100대 기업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리고 87년 '포브스 100' 리스트를 다시 출간하면서 1917년의 리스트와 1987년 당시의 상위 기업 리스트를 비교했다. 그 결과 과거 100대 기업 중 61개 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게다가 남은 39개 기업 중 겨우 18개 기업만이 상위 100대 기업 안에 남아 있었고, 이 기업들의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보다 20%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이유 역시 변화에 대한 기업의 태도에 달려 있었다. 시장은 과거에 아무리 훌륭했던 기업이라도 현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가차없이 퇴출시킬 정도로 언제나 빠르고 과감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시장처럼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존에 급급하지 말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세로 변화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변화를 통한 자기 창조는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배움과 버림'을 통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행동 패턴을 갖고 있지 못할 때 배움이 필요하고 이미 습관화된 행동 패턴과 지식이 있으나 변화와 자기 창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히 없애는 것이 버림이다. 변화와 혁신은 이러한 '배움과 버림'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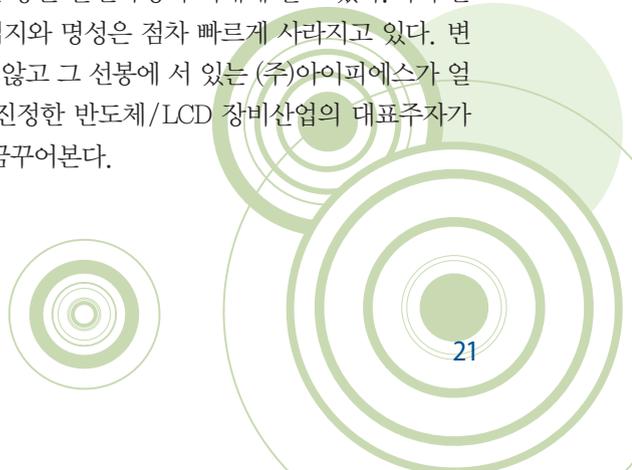
변화의 선봉에서 있는 (주)아이피에스

현재의 (주)아이피에스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느냐 여부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2005년 폭발적인 매출 증대 및 이익 확대 그리고 IPO를 통해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았다면 2년 여의 시간 동안 매출 정체와 이익률 하락으로 인한 큰 폭의 주가 하락으로 쓴맛 역시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체득한 것은 잠깐의 성공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그 '무언가'였고 그 해답은 변화와 자기 창조였다. 그 첫걸음은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회사의 실적과 목표를 설명함으로써 임직원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고객감동 경영을 추진하여 외부 고객인 Customer의 Needs를 충족함은 물론이고 내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과거 체득한 경험에 안주하는 편안함을 버리는 즉, 변화의 경험을 통해 (주)아이피에스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토대를 하나씩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싫든 좋든 불연속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수한 기업의 확고한 입지와 명성은 점차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선봉에서 있는 (주)아이피에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정한 반도체/LCD 장비산업의 대표주자가 되어 있는 날을 꿈꾸어본다.





임원 리더십 2차 과정 및 최고경영자 리더십 과정 등 실시



2008년 상반기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도 그룹차원의 임/직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임원 리더십 과정 및 최고경영자(CEO) 리더십 과정이 강원도 평창에 있는 '숲속의 아침' 펜션에서 실시되었다.

9월 24일부터 2박 3일 과정으로 진행된 임원 리더십 2차 과정과 10월 8일부터 실시된 최고경영자(CEO) 리더십 과정 등 총 2개 과정이 실시 완료되었으며, 10월 21일부터 실시된 팀장 리더십 2차 과정을 끝으로 2008년도 모든 그룹교육은 마무리되었다. 10월까지의 교육과정 완료로 2008년도 그룹교육은 신규입사자 과정을 포함해 총 6개 과정에, 임원을 포함 총 170여 명의 계열사 임직원이 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하반기 실시된 모든 교육과정에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그룹 회장 특강 시간을 편성하여, 직접 특강을 실시하는 등 교육장을 방문하여 모든 교육 참가 인원을 격려하고, 향후 정기적인 그룹교육으로 정착,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룹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였다.

✓ 임원 리더십 2차 과정
✓ 최고 경영자 리더십 과정

임원 리더십 과정

9월 24일부터 2박 3일 과정으로 실시된 임원 리더십 과정에는 상반기 과정에 참석하지 못한 각 계열사 임원진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임원으로서의 리더십 역량 교육을 비롯해 전략적 의사결정, Communication 전략 및 코칭 스킬 등의 내용으로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여러 계열사의 임원들과 팀을 형성하여 각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과제해결을 위한 역할 수행 등 이론 강의 보다는 실습을 통한 실행력 강화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평소 만날 기회가 없었던 타 계열사 임원들과의 Networking 등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임원들은 '그룹차원의 교육과정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아무리 업무에 바쁘더라도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Leadership

최고경영자(CEO) 리더십 과정

10월 8일부터 2박 3일 과정으로 실시된 최고경영자(CEO) 리더십 과정에는 각 계열사 대표이사 총 11명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각 계열사를 이끌고 있는 최고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과 Communication, 전략적 의사결정을 비롯해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고객 중심의 경영 마인드, 이미지 컨설팅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최고경영자 과정에도 다른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그룹 회장 특강 및 대화의 시간이 마련되어 사무실이 아닌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교육과정에 참석한 최고경영자 분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룹차원의 교육과정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명실상부한 그룹공동교육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기대와 관심을 표명하였다.

2008년도 교육과정은 10월 21일부터 실시되는 팀장 리더십 과정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고, 올해 교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도에도 더욱 알차고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교육 참석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8 아디다스 킹 오브 더 로드'에 참가한 신원종합개발(주), 신원 러너스 클럽

우리는 달린다! 고로 함께 뭉친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선선한 바람에 온전히 몸을 내맡기고 기분 좋게 땀 흘리며 땀 수 있는 계절은 러너들에게 축복이다. 지난 10월 5일 '2008 아디다스 킹 오브 더 로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신원종합개발(주) 마라톤 동호회원들을 만났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 일대는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10km 전문 대회인 '2008 아디다스 킹 오브 더 로드' 마라톤 대회에는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출전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 혈기 왕성한 청년, 직장 동료와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일단의 중년, 은발의 노부부에서 벽안의 외국인까지 출전자들의 면모도 다양각색. 신원종합개발(주) 마라톤 동호회인 '신원 러너스 클럽(SRC)' 회원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

오전 8시, 경기장에 모인 회원들은 동호회장인 기획총무팀의 한기환 팀장의 지휘 아래 간단히 준비 운동을 하고 정담을 나누며 시뭇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 팀장은 "이번 대회 참가로 직원들이 더욱 뽄뽄 뭉쳐 단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대회 참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참가하는 신원종합개발(주)의 도전자들은 모두 18명. 이 중 10km 도전자가 14명이다. 예상 기록과 도전 기록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표정만은 한결같이 밝다.





대회는 10km, 5km, Run For Love 3km의 세 코스로 진행됐다. 9시가 가까워오자 출발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구호가 함성처럼 물결치고 다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친다. ‘탕’하는 출발 소리와 함께 참가자들이 열렬한 환호 속에서 달리기 시작했다. 10km는 경정장 아치에서 출발해 정문과 반환점을 돌아 경정장 사거리와 후문을 거쳐 끝나는 코스이고, 5km는 경정장 내부 순환도로를 따라 된다.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견적팀의 서진권 대리는 아내 김선영 씨와 두 아들의 든든한 응원을 받으며 힘껏 뛰어 나갔다. 외주구매팀의 최정미 사우는 남편과 함께 10km에 도전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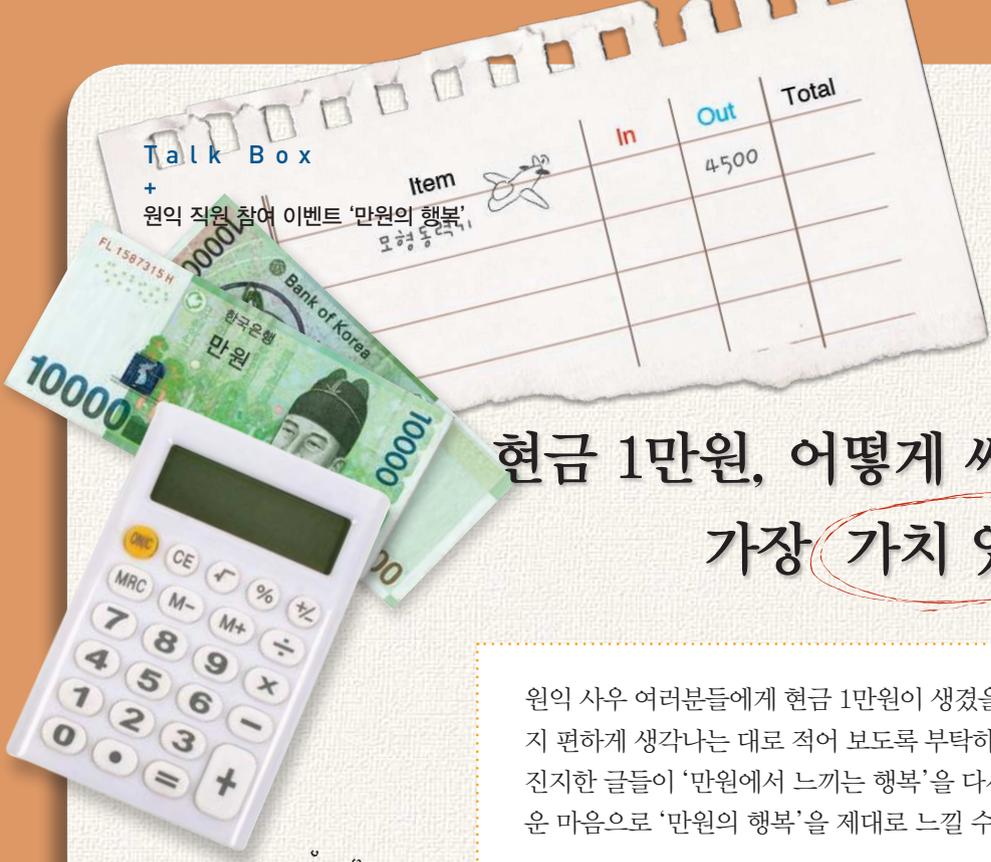
3km 출전자들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5km 도전자들 중 선두그룹이 모습을 드러냈다. 16분여 만에 1등이 결승 테이프를 끊었고, 이어 10km 도전자들도 30분대에 접어들자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신원 러너스 클럽 출전자 중 가장 좋은 성적은 모두의 예상대로 이진원 과장이 거뒀다. 44분 04초로 결승점을 통과한 그는 “예상보다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뒤를 이어 공사팀의 박철현 사우가 50분 49초의 기록을 끊었고, 한기환 팀장이 54분 40초로 54분대 도전에 성공했다. 5km 도전자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이는 업무팀의 유미랑 사우. 그녀는 무릎을 다쳤음에도 39분 40초의 성적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영업팀의 최정환 사우와 품질안전팀의 박찬승 사우는 나란히 1시간 10분대에 들어왔다. 썩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순위보다는 출전에 의미를 두었기에 무리하지 않고 열심히 뛰었다고.

마라톤의 매력에 대해 묻자 누군가는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힘들어도 참고 뛰는 극복 정신, 그리고 결승선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할 때의 편안함”을 꼽았다. 또 다른 이는 “결승선에 다다랐을 때의 기분은 뛰어본 자만이 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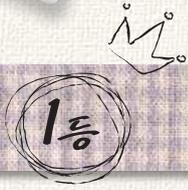
신원 러너스 클럽 회원들이 말하는 마라톤의 매력, 그것은 말 그대로 달려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값진 선물이다. 10월의 파란 가을 하늘 아래서 그들은 또 한 번 가쁜 호흡 뒤에 썰물처럼 밀려오는 기분 좋은 상쾌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현금 1만원, 어떻게 써야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요?

원익 사우 여러분들에게 현금 1만원이 생겼을 때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재미있는 또는 창의력 넘치는 혹은 진지한 글들이 '만원에서 느끼는 행복'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만원의 행복'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주)원익쿠츠
품질관리부
황의진 과장

나라면 모형동력기 R-1을 살 것이다. 학교 가는 주 토요일, 세연와 제연의 수업이 끝날 때 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을 마치고 아무 생각없이 집으로 가려고 하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문구점에 가서 북적대는 다른 아이들 틈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한 개에 4500원하는 '아카데미 모형동력기 R-1'을 사 주어야지... 입이 귀에 걸려 있는 두 아이를 보면 나 또한 흐뭇해질 것이다. 얼른 점심을 먹고 모형비행기 조립이 시작되면 내 것 먼저 해달라고 서로 조르는 아이들에게서 나는 언제가 저만한 나이 때 아버지께 느꼈던 그런 아빠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서로 자기 것이 높이 날 거라고 한껏 부풀어 있는 두 아이의 얼굴을 보면, 평소에 같이 못 놀아 준 미안한 마음도 들겠지... 그리고 다 만든 모형비행기를 자전거에 싣고 다시 초등학교로 가야지. 물론 모형비행기를 사고 남은 거스름돈 천원도 가지고...

날 좋은 토요일 오후는 세연이, 제연이와 함께 만든 모형비행기를 날리고, 저녁때가 되면,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즐거웠던 시간을 떨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다시 문구점에 들러 그동안 못 먹게 했던 슬러시를 사 주어야지. 세 잔을 살돈이 안 되서 두 잔밖에 못 샀지만 셋이 나눠 먹으면서 세연이, 제연이에게 오백원의 가치도 알게 해줘야겠다. 물론, 엄마한테는 슬러시 먹은 것 비밀로 하기로 하고... 어쨌든, 나는 오늘 만원으로 최고의 아빠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주)아토
경영지원본부 IT인
프라팀
박만기 과장

만원,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사람들을 미소짓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기분 좋은 선물이라면 노래도 좋겠다. 휴대폰 벨소리, 좋을 것 같다. 한 곡당 600원, 만원이면 16명에게 보낼 수 있다.

어머니에겐 어머니 18번 '사랑의 밧줄'을, 아내에겐 좋아하는 엠씨몽 노래를, 나이답지 않게 흘러간 노래만 부르는 우리 대리에게는 윈더걸스 노래를, 받는 사람이 좋아할만한 노래를 선곡해서 보내면 한번쯤 미소짓고 벨소리가 울릴 때 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15명에게 휴대폰 벨소리를 보내고 나머지 한 곡, 그건 내 휴대폰 컬러링의 몫이다. 제목은 김건모의 '사랑해'.(요즘 좋아하는 노래다) 나에게 전화를 건 당신들을 사랑한다.

2등

신원종합개발(주)

업무팀

유미랑 사원

서울 City Tour는 어떨까. 종로구에서는 북촌박물관 자유이용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가회동, 삼청동 지역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가회동은 한옥과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체험, 관람할 수 있다. 가회동 지역은 만원으로 박물관 5개소를 자유롭게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루에 5곳을 둘러본다면 시간에 쫓기어 제대로 구경하기 힘들테지. 그래서 자유이용권 구매 후 관람하지 못한 곳은 나중에 다시 관람할 수 있다고 한다.

가회동에서는 한옥과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멀리 여행가지 않더라도 한국의 고유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바쁜 생활에 쫓기어 주변을 여유롭게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한 템포 쉬어가며 삶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일상 속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을 만원으로 체험할 수 있다면 이제 만원은 그냥 돈 10,000원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타임머신 티켓이 아닐까.^^ 북촌박물관 관람을 마쳤다면 종로 곳곳에 숨어 있는 오래된 맛집을 찾아가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작고 허름하더라도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맛을 낸 음식들은 패스트푸드보다는 깊은 맛과 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야경을 보러 가도 좋을 것이다. 남산의 야경은 홍콩의 빅토리아피크만큼, 아니 그보다 아름답다고 말하기도 한다. 남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립극장 앞에서 2번 버스를 타면 단돈 1000원으로 남산타워까지 안내한다. 버스를 탈 때는 꼭 왼쪽에 앉아서 올라가는 동안 서울 시내의 야경을 보도록 하자~~!!



(주)아토

장차사업부 GMSE팀

이정훈 과장

한비아(월드비전 구호팀장) 씨의 책을 보고 알게 된 월드비전을 통해 몇 달 전부터 2만 원씩 해외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해외의 많은 어린이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교육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해 가난에서 평생 못 벗어난다고 한다. 지속적인 2만 원의 후원은 한 명의 어린이가 일을 하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크지 않은 2만 원의 돈이 한 명의 해외 어린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3등

(주)위닉스

영업전략

임승현 부장

인터넷과 휴대폰은 빠르고 편리하게 서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 하루에도 이 두 기계에 의존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안 기다림과 설렘이 없어진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1만 원을 특별하게 쓴다고 하면 우표와 편지지를 사고 싶다. 여자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언제 답장이 올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며칠을 보냈던 추억의 시간을 되새기면서, 1만 원이면 220원 우표를 45장이나 살 수 있고, 45명의 예전 여자 친구들에게 보낼 걸 생각하니 마음이 벌써, 뜨끈해 온다. 그런데, 답장은 올까???

(주)아이피에스

장비개발팀

박용균 과장

요즘처럼 미국발 금융 위기로 증시가 추락하고 있는 이 시기에 증권사 통장을 개설하여 현재 주가가 1770원 정도이니 만원에 딸애의 용돈 620원을 더해 주식 6주를 구입한다. 회사의 주식이 회사의 가치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 주고 싶고, 5년 정도 장기 투자로 배당수익, 가치 변화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싶다. 두 딸의 아빠인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공부만 잘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방과 후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학습지 등으로 공부에 매달리는 모습이 나의 어릴 적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 안타깝기도 하다. 공부만 잘하는 똑똑이 보다 세상을 지혜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똑똑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다.

글 | 이승훈 매일경제 산업부 기자

매일경제신문에서 금융부와 경제부, 국제부를 거쳐 산업부에서 통신/전자 업계와 경영 컨설팅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 금융 위기의 진실과 향후 방향

지난 9월 15일, 여유로운 마음으로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고 내일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던 국내 금융시장은 뉴욕발 뉴스로 일대 혼란을 겪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파산 신청을 하며 몰락하고 메릴린치가 BOA(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할값으로 매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부도 직전에 몰린 미국 최대 보험사인 AIG를 살리기 위해 미국 정부는 고심 끝에 850억달러(약 89조원)를 쏟아 부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미국 금융시장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세계 금융시장을 위락터락해 왔던 투자은행(IB)들의 몰락은 단순히 일개 회사의 사업 실패가 아닌 현 시대 금융시스템의 붕괴, 나아가 신자유주의의 몰락과도 연계될 수 있을 만큼 충격적으로 사건으로 비쳐졌다.

미국발 전세계 금융시장 위기

“지금이 미국 경제의 전환점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할 때다.”

(지난 9월 1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발언)

“미국 자본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전환점(decisive turn)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 9월 20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투자은행 시대의 종말을 겪고 있는 미국 정상과 언론들의 반응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겪고 있는 소용돌이의 깊이를 짐작케 했다.

국내시장의 충격도 두 말할 나위가 없었다. 이어지는 미국발 뉴스에 주가와 환율은 요동쳤고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상태가 계속됐다. 국내 주식시장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소식을 접한 이튿날에 주가지수인 코스피가 90포인트나 떨어지며 1400선이 붕괴됐다. 미국 정부가 AIG를 살리기로 했다는 뉴스가 전해진 17일에는 37포인트가 올랐으나 18일 다시 32포인트가 떨어지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지난해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아직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뉴욕 월가(Wall Street)의 금융위기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과 그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투자은행의 붕괴... 왜?

리먼브라더스와 메릴린치 등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IB)들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투자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한 것이 불씨가 됐기 때문이다. 투자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증가하는 등 주식시장에 대한 브로커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은행의 구조를 보면 파생상품은 물론 주택담보대출과 깊은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모기지보증회사나 대형 투자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투자은행이 증권으로 만들어 팔아 왔기 때문이다.

또 투자는행은 증권화된 여러 등급의 주택담보대출을 묶은 뒤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해서 자사가 보유하거나 전 세계 금융회사에 내다 팔았다. 주택담보대출이 여러 단계의 파생상품을 거치면서 손실이 날 경우 그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예측하기 힘든 상품도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초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현실화되자 금융시장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상품의 거래가 끊겼다. 관련 상품의 거래 비중이 높은 일부 투자는행의 경우 자금 줄이 마르기 시작한 것은 당연 수순이다.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을 많이 팔아 온 리먼 브러더스와 메릴린치가 결국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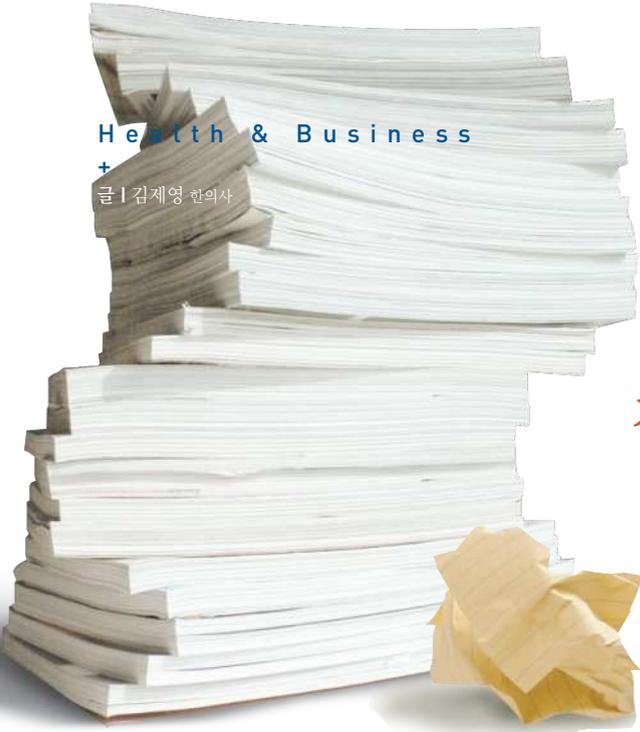
전세계
금융위기 진정될까

미국 금융위기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살아남은 투자는행들의 상업은행 전환, 미 행정부의 구제금융 법안 통과 등으로 급한 불은 끈 상태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법안 통과로 미국 재무부는 일단 7000억 달러(약 800조 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으로 금융회사들의 부실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구제 금융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성급한 기대를 경계했다. 한국 경제의 수장을 맡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재의 미국 발 금융위기가 시작인지 끝인지에 대한 물음에 “제 인식은 솔직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 문제가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문제의 불확실성을 내비쳤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불길이 유럽으로 옮겨 붙을 경우 유럽 대형 은행들이 잘 극복해 줄 것 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미국의 기업 생산과 가계의 소비 등 실물경제가 구제금융의 영향 속에서 얼마나 잘 견뎌줄 지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의 희비는 엇갈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금융 불안,
우리의 대응책은

수십 년 간 쌓아 올린 투자는행들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등 월가의 진통을 한국이 피할 방법은 사실상 뚜렷한 것이 없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다른 투자는행도 완전히 안정권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 데다 이 같은 위기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일단 미국 발 금융위기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 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화와 원화의 유동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도 최우선 업무다. 아울러 개별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더불어 외환정책이나 경기판단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발언은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핵심 부처간 정책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개인은 실물 가격 하락과 유동성 부족 상황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전세계적인 유동성 부족 현상은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대출금리는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고 덩달아 이자 금리도 상승할 것이다. 주택 가격을 비롯한 실물 자산의 가격 하락도 예상되고 있다. 결국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서둘러 빚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주택 가격 하락과 대출 이자 상승이 겹쳐질 경우 생각지도 못한 소득 하락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당분간 주식시장 보다는 안전한 기업의 고금리 채권이나 저축은행, 신탁 등의 고금리 예금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국내외 불안 요인이 많기는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이번 위기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직장인의 적 스트레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숨이 습기를 먹듯 조금씩 몸에 누적되어 직장인들의 건강을 갉아먹는 스트레스, 이러한 스트레스의 본질을 알고 대처법을 익힘으로써 건강한 직장 생활을 영유하도록 하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머리가 아파요”, “그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스트레스 때문에 못살겠어요”. 많은 직장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이 스트레스란 무엇일까?

스트레스란 외적 그리고 내적 자극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각성 반응으로서,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겪는 삶의 동반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각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그 반응 또한 다양한데,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은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지속될 경우 신체적 반응을 유발하며 다른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크기에 무엇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고 정의할 수는 없으나, 스트레스를 관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주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와 목의 근육이 수축해 머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두통이 생기게 된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은 불면증을 불러오기도 한다.
- ❖ 스트레스를 받으면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당 수치가 높게 나오게 된다.
- ❖ 류머티스성 관절염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고, 만성통증도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연관이 있다.
- ❖ 맥박과 혈압이 상승하면 지나친 경쟁심이나 분노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 ❖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좋아지는 병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 배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그 증상이다.
- ❖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호르몬 등의 분비를 관장하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하는데 스트레스로 균형이 깨지면 피지가 과잉으로 분비되거나 수분이 부족하고, 다크서클이 나타날 수 있다.
- ❖ 스트레스는 비만의 가장 큰 적이라 할 수 있다. 비만은 혈액속의 지방 성분이 과도해 동맥경화, 심근경색을 잘 일으킨다.

이외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폐해는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까? 무엇보다 스트레스는 생활 습관부터 교정을 하여야 한다. 스트레스를 보다 덜 느끼는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관리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이렇게 날려보자!

1. 천천히 행동하자.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일상적 행동들이 필요 이상으로 빨라지게 된다. 의식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천천히 하려고 애쓰면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을 한결 줄일 수 있다.

2.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 벗어나자.

가끔은 스트레스의 원인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좋다. 책을 읽거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3. NO라고 말하자.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자. 불편한 상황들에 얽매이는 것이 줄어들 것이다.

4.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자.

푸른 생선, 복합 탄수화물(현미, 완두), 식물성 기름 등은 스트레스에 좋은 음식들이다. 반면 제과류, 고기류, 모든 종류의 술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5.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명상이나 단전호흡을 하자.

목을 수시로 앞뒤 좌우로 돌려주고, 양쪽 관자놀이를 가볍게 눌러주는 행동, 그리고 명상이나 단전호흡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6. 전문가의 도움받기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나 강박증을 느낀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 이외에도 음악치료, 미술 치료, 아로마 치료 등은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뇌를 건강하게 하는 청뇌차나 산약차, 피로를 회복하게 하는 솔잎죽엽차 등을 마시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성을 길러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스트레스 자가 진단법

당신이 안고 있는 스트레스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래의 각 항목에서 4개 이상 '그렇다'라고 느낀다면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입니다.

신체상의 징조

- 숨이 막힌다
- 목이나 입이 마르다
- 불면증이 있다
-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 목이나 어깨가 결린다
- 변비나 설사가 있다
- 나른하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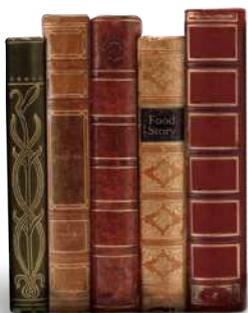
행동상의 징조

- 반론이나 불평, 말대답이 많아진다
- 주량이 증가한다
- 일의 실수가 증가한다
- 말수가 적어지고 생각에 깊이 잠긴다
- 말수가 많고,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펼칠 때가 있다
-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낸다
- 화장이나 복장에 관심이 없어진다
- 결근, 지각, 조퇴가 증가한다

심리, 감정상의 징조

- 언제나 초조해한다
-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잘 낸다
- 건망증이 심하다
- 우울하고 쉽게 침울해한다
- 원가를 하는 것이 귀찮다
- 매사에 의심이 많고 결단력이 부족하다
- 하는 일에 자신이 없고 쉽게 포기한다
- 원가 하지 않으면 진정할 수가 없다
- 성급한 판단을 내린다

비즈니스 맨의 센스를 더해 주는 즐겁고 맛있는 책들



사람들은 늘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그런데 처음 만남에서 어색함을 해소할 공통된 주제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부담이 없으면서도 나만의 센스를 높여 주는 이야깃거리를 찾는다면 그중 하나가 음식이 아닐까. 특히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이라면 곧장 비즈니스로 직행하지 않은 당신의 센스에 감탄할 것이고, 부담없이 꺼내는 음식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음식 이야기는 언제나 누구든지 즐겁게 해주는 청량제이기 때문이다.

Special Menu



진짜 세계사, 음식이 만든 역사

(21세기연구회|홍성철, 김주영 역|베스트출판|2008.06)

〈진짜 세계사, 음식이 만든 역사〉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음식 이야기’라는 부제답게 늘 익숙하게 접해온 음식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들려준다. 이 책은 음식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펼쳐놓았다. 세계 지도를 통해 식재료와 음식의 기원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연결된 음식을 찾아서 알려준다.

우리들이 즐겨 먹는 감자는 처음에는 유럽에서 외면 받는 식재료였다. 거무튀튀하고 알도 작아서 아주 보잘것없이 생겼고 자른 표면이 검게 변하는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기도 했다. 성서에 감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용을 금한 종파까지 있었다. 그러나 여러 경로로 감자 보급 작전이 펼쳐지고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한 결과 감자는 주요 식량이 되었다. 이것은 감자가 유럽에 들어온 지 2세기나 지난 후의 일이다.

햄버거스테이크, 우스터소스, 핫도그 등 음식들이 생겨난 계기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다. 책은 ‘미식가와 관련된 음식’이나 ‘음식을 둘러싼 속담’으로 이어진다. 책 중간 중간 지도 위에 음식의 이동 경로를 표시한 부분이나 그림으로 나타낸 음식들 역시 볼거리다.



음식 잡학 사전

(윤덕노|북로드|2007.05)

〈음식잡학사전〉은 ‘음식’에 관한 책이다. 그러나 흔한 레시피도, 금방이라도 손을 뻗어 입에 가져가고 싶은 만큼 탐스러운 음식 컬러사진도 없다. 이 책은 음식의 맛을 묘사한 책은 아니다. 음식의 역사, 인물, 유래, 재미있는 자투리 상식까지 음식의 모든 것을 풀어낸다.

이 책에는 총 70여 개의 음식들이 소개되고, 그 음식들과 관련된 뜻밖의 문화사가 엮여 있다. 각각의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사람들이 즐겨 먹었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등을 추적하면서 음식에 얽힌 유래와 에피소드들을 맛깔나게 풀어낸다. 한마디로 수많은 상식과 지식 중에서 특히 ‘음식’을 집중 조명한 제목대로 ‘음식 잡학 사전’이다.

요즘은 없어서 못 먹는 랍스터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시절이었을 때는 ‘가난의 상징’이었는데 하면, 짬뽕이 실은 “너 밥 먹었냐?”라는 중국어 “츠판?”을 사투리로 “샤뽕?” 하고 물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 등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이야기 등이 흥미롭다.



기술혁신, 신뢰 경영으로 세계 시장 1위 지켜가다

디비코(주)는 디지털 비디오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디지털 비디오 전문 기업이다. 디비코(주)는 기존에 없던 시장을 창출하여 블루오션을 개척한 후에도 여전히 이 분야의 기술과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디비코(주) 이지웅 대표이사

디비코(주)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PC에서 디지털TV를 수신할 수 있는 'PC용 디지털TV 수신기'와 역으로 PC의 동영상을 TV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를 꼽을 수 있다. 디비코(주)는 이 분야의 원조 기업으로, 국내시장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고급 기종의 제품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고한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며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시장을 창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쟁이 덜한 편입니다. 우리 회사는 2003년부터 해마다 40~50%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이처럼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후에도 시장에서 리더십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출시하면서 경쟁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지웅 대표의 설명처럼 실제로 디비코(주)는 1년에 10여 종의 신제품을 꾸준히 선보일 정도로 기술 개발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신제품을 대거 출시해 상반기 대비 월 매출을 2배 이상 끌어 올렸다.

이 대표가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역시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성이다. 그는 “기업의 생존은 제품이 아닌 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제품 하나로 기업이 생존할 수는 없어요. 혁신하지 못하고 제품에만 안주하는 기업은 주변 환경이 급변하거나 시장이 사라지면 살아남 수 없지만, 변화하는 능력이 있고 혁신이 몸속에 배어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신뢰다. 주주와 경영진 간의 신뢰, 경영진과 직원들의 신뢰, 회사와 고객 사이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원익그룹의 핵심가치인 신뢰, 공정, 투명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세 가지 핵심가치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 가장 기본은 신뢰”라고 강조하며 “신뢰에서 자율이 탄생하고, 자율이 보장되면 공정성과 투명성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마련”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디비코(주)는 원익그룹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눈길을 끈다. 고객과 직원, 거래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웹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디비코(주)의 내부 인트라넷에는 매출 현황이 실시간 집계되어 올라오고, 재고와 원가 등 회사 내 다양한 정보와 성과도 웹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직원 게시판을 통해 부서별 업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거래사의 불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도 별도로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디비코(주)의 모든 활동은 인트라넷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비코(주)는 이제 디지털 비디오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그 과정 중 하나로 2010년께는 코스닥 상장도 계획 중이다. 머지않아 디지털 비디오 시장은 다방면의 통합을 통해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이때 제2라운드가 펼쳐지며 비로소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무궁무진한 기회의 바다에서 디비코(주)가 또 어떤 보물을 건져 올릴지 기대해 본다.

세계상에서 가장 작은 진정한 PVR이 온다.



TVIX™ 

HD/디지털 케이블/아날로그 방송 시청 및 녹화
생방송을 되돌리는 타임쉬프팅 기능
고화질 외부입력 녹화
HD급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HD/아날로그 녹화 파일을 PC에서 바로 사용 가능
2.5" SATA 하드디스크 사용으로 세계최소형 PVR 실현



티빅스 PVR R-2210



티빅스 PVR R-3310